



# 고가 수입차 '고속 질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지난 달 국내 출시한 전기 SUV '더 뉴 EQE SUV'. 판매가격이 1억990만원부터 시작하는 고가의 모델이지만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벤츠코리아 제공〉

상반기 1억원 이상 3만7천대 판매 전년비 9.3% 증가...역대 최대 수입차 브랜드,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라인업 늘리며 시장 커져  
롤스로이스 등 초고가 수입차도 전년비 28.3%↑...소득 양극화 영향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인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가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수입차 판매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고가의 수입차는 오히려 판

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고가의 전기차를 선택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7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가 3만7000여대 판매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기록했다.  
올 1~6월 1억원 이상의 수입차는 총 3만7239대 판매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4055대가 판매된 것과 비교해 9.3%가 증가한 것이다.  
전체 수입차 중 고가 수입차 판매 비중은 전년 상반기 대비 2.5%포인트 올라 올해 상반기 전체 수입차 판매 대수(13만689대)의 28.5%에 달했다.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은 최근 5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상반기 기준 2019년 1만1084대에서 2020년 1만9229대로 늘었다가 2021

년 3만3741대로 급증하며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고가 수입차 판매 비중은 상반기 기준 2019년 10.1%, 2020년 15%, 2021년 22.8% 등으로 증가해 올해 30%에 육박했다. 4년 만에 비중이 거의 3배로 늘었다.  
전체 수입차 판매 대수는 상반기 기준 2021년 14만7000여대에서 작년 13만1000여대로 줄었고, 올해도 소폭 감소했는데도 고가 수입차 판매량은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수입차 브랜드들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프리미엄 친환경차 라인업을 집중적으로 늘리면서 고가 수입차 시장 규모를 키웠다고 분석한다.  
올해 상반기 판매된 1억원 이상의 수입차 가운데 57%(2만1190대)는 친환경차였다. 판매량은 지난

해 상반기(1만7498대)보다 3700대 가까이 늘었으며, 고가 수입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7% 증가했다.  
주요 수입차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는 올해 고성능 순수전기 세단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E 53 4매틱(MATIC)+'과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뉴 EQE SUV'를 국내 출시하는 등 1억원이 넘는 전기차 모델을 선보인 바 있다.  
또 BMW 역시 올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스포츠유틸리티차(SAV) '뉴 XM' 등을 출시하는 등 고가의 수입차가 잇달아 출시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고가 수입차 판매 성장은 소득 양극화의 영향으로 초고가 수입차 브랜드의 판매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초고가 수입차 브랜드인 롤스로이스, 벤츨리, 람보르기니,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브랜드 판매량은 2066대로, 지난해 상반기 1610대에서 28.3% 늘었다.  
법인 명의의 고가 수입차 구매량이 늘어난 점도 고가 수입차 규모 확대에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규 등록된 1억원 이상 수입 법인차는 지난해 상반기 2만2928대에서 올해 상반기 2만4014대로 1086대(4.7%) 늘었다. 법인차는 이르면 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기존 차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용 번호판 제도 시행 전 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미리 사 두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마세라티 SUV '그레칼레' 프로모션

이달말까지 중고차 잔존가치 보장·저리 할부 등



이탈리안 하이퍼퍼포먼스 럭셔리 마세라티는 8월 한 달 간 마세라티의 새로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그레칼레(Grecale)'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 프로모션은 그레칼레의 고성능 트림인 '트로페오' 모델의 본격적인 국내 출시에 맞춰 '그레칼레' 한정 프로모션으로 진행된다. 고잔가, 트레이드인(Trade-in), 특별 금융 프로모션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고잔가 프로모션은 향후 중고차 가격의 안정성 및 차량 교체 주기가 짧은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최대 56.5%(36개월 계약 기준)의 높은

잔존가치를 보장해 준다.  
그레칼레 한정 트레이드인(Trade-in) 프로모션은 마세라티, 포르쉐,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 총 9개 브랜드에 적용 가능하다. 이밖에 특별 금융 프로모션은 리스, 할부 및 장기 렌터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그레칼레 트로페오는 이번 달부터 국내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이며, '8월 특별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국 8개 마세라티 전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벤츠코리아, 무상 서비스 기간 최대 5년 연장

'ISP 플러스' 서비스 상품 출시  
점검·보증수리·소모품 교환 등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ISP 플러스(ISP Plus·사진)' 서비스 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벤츠 차량의 기본 무상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수리, 정기점검 및 주요 소모품 교환 등 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우선 ISP 플러스는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보증수리, 정기점검, 소모품 교환 및 편의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ISP'(Integrated Service Package, 통합 서비스 패키지) 기간을 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 3년 또는 10만km(선도래 기준)에서 5년 또는 16만km까지 연장하는 상품이다.  
해당 서비스 상품에는 '베이직', '클래식', '엑셀러نت'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보장 내역이 가장 많은 'ISP 플러스 엑셀러نت'의 경우 고객은 파워트레인을 비롯한 차체 및 일반 부품의 보증수리뿐만



아니라, 정기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와이퍼 블레이드 등 주요 소모품도 마모 시 교환할 수 있으며, '픽업 & 딜리버리', 24시간 긴급출동, 운행불가 차량 견인 등 고객 편의 서비스까지 제공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ISP 플러스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30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게 호텔 및 리조트 상품권, 아이패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렉서스 전동화 라인업 시승하고 선물 받고

31일까지 드라이빙 캠페인  
렉서스코리아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렉서스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렉서스 썸머 드라이빙' 캠페인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렉서스 썸머 드라이빙 캠페인은 렉서스의 최신 전동화 모델들을 통해 렉서스만의 주행 감성인 '렉서스 드라이빙 시그니처'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시승 캠페인이다.  
이번 렉서스 썸머 드라이빙 캠페인에서는 지난 6월에 새롭게 출시한 렉서스 최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RZ'와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

시된 5세대 뉴 제너레이션 'RX', 렉서스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ES' 등 렉서스의 다양한 프리미엄 전동화 모델들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캠페인 기간 중 시승을 완료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그랜드 조션 제주 2박 숙박권(1명), 제주도 2인 왕복 항공권(2명), 배스킨라빈스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강대한 렉서스코리아 상무는 "렉서스 드라이빙 시그니처로 표현되는 렉서스만의 드라이빙으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현대차 '전기차 충전' 구독 요금제 출시

현대자동차는 '포터II 일렉트릭'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구독형 전기차 충전 요금제 '럭키패스 H 하이웨이+'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럭키패스 H 하이웨이+'는 월 구독료 3만9000원으로 1800kWh를 충전할 때까지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매달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는 매일 최대 2790km를 충전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가입 고객은 SK 일렉트릭, 한국전력, 환경부가 운영하는 충전기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SK 일렉트릭에서 공용 급속 충전기 50% 및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기 20%, 공용 완속 충전기 10% 등을 비롯해 한국전력에서 공용 급속·완속 충전기 20%, 부분 공용 완속 충전기 10%, 환경부에서 공용 급속 충전기 5% 등을 충전 요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SK 일렉트릭 공용 완속 충전기와 한국전력 부분공용 완속 충전기를 이용할 때는 월 1800kWh 한도와 무관하게 충전 요금의 10%를 무제한 할인받는다.  
현대차는 이번 구독형 전기차 충전 요금제 출시로 주행거리가 긴 소상공인 고객의 충전 부담이 한



층 줄어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SK 일렉트릭 공용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구독료를 고려해도 연 최대 328만1760원(충전 요금 347.2원/kWh 기준)을 절감할 수 있다.  
'럭키패스 H 하이웨이+' 가입 고객은 할인 혜택 외에도 월 1800kWh 한도 내에서 결제한 금액의

포터II 일렉트릭 고객 대상  
연간 최대 328만원 절감  
3%를 SK 일렉트릭 크레딧으로 적립 받아 SK 일렉트릭 EV 충전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포터II 일렉트릭 보유 고객은 '마이현대' (myHyundai) 앱에서 신청한 뒤 구독형 충전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